

제주 삼별초와 몽골·동아시아 세계

윤용혁*

- I. 머리말
- II. 13세기, 몽골의 고려 침입 전야
- III. 제주의 지리적 강점에 주목한 삼별초 세력
- IV. 삼별초의 제주, 그 이후
- V. 항파두성, 새로운 의미 부여의 필요성
- VI. '한몽 수교 800년' - 맺는말에 대신하여

국문요약

삼별초는 1270년 제주도를 점령한 이후 1273년 제주에서 패망할 때까지 이곳을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었다. 제주도를 몽골에 대항하는 중요한 전략 요충으로 처음 파악한 것은 삼별초 세력이었다. 그러나 제주도를 전략 거점으로 실제 이용한 것은 몽골이었고, 이에 의하여 제주도에는 몽골 문화가 깊이 이식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제주도에서 몽골 관련 문화유산의 핵심 포인트인 항파두성은 '항몽'이라는 민족적 관점이 강조되어 왔다. 항파두성의 문화재 지정 명칭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도 이러한 개념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제주도의 특성을 적극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 문화유산의 몽골적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항파두성의 문화재 명칭 변경,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추진, 그리고 한몽 수교 800년에 즈

*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음한 제주도의 적극적 역할 등이 이에 의하여 과제로서 부각된다.

주제어 : 제주도, 삼별초, 항파두성, 몽골 지배, 한몽 수교

I. 머리말

제주의 특별한 경관과 자연과 역사를 자원으로 하는 관광산업의 진흥에 의하여 제주도는 바야흐로 역사상 가장 괄목할만한 시대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의 제주는 동아시아 대륙에서 큰 바다에 떨어진 변두리의 작은 섬에 불과하였지만, 이제는 ‘동아시아의 중심점’이라는 인식과 자부심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북으로 한반도, 동으로는 일본열도, 서쪽으로 중국이고, 남으로는 오키나와, 서북쪽으로는 몽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을 처음 주목한 것이 13세기 몽골전란기의 삼별초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삼별초는 지나치게 민족의식적 측면이 강조되어 정리된 감이 있다. 민족의식의 측면을 주목한 것은 나름 일정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그러나 문화다양성이 강조되는 21세기의 우리 시대에 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갖는 다양한 의미를 희석시키고 오히려 그 진면을 왜곡하는 바가 없지 않다. 하나의 역사, 그리고 문화유산이 갖는 의미는 내재된 다양한 측면 때문에 시대에 따라 다시 해석되고 조명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제주에 있어서 삼별초 유적과 역사도 이러한 범주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13세기 삼별초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우리 시대에 갖는 역사적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¹⁾

1) 본고는 몽골학회, 제주나눔연구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공동 주최의 국제학술회의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37회 한·몽국제학술대회> (2016.3.26. 제주대학교)에서 구두 발표한 글을 보완한 것이다.

II. 13세기, 몽골의 고려 침입 전야

8백 년 전, 13세기는 ‘몽골의 시대’였다. 세계사에서든, 한국 역사에서도, ‘몽골’은 13세기 역사의 키워드이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몽골의 중요한 작전 목표는 첫째가 금이고, 둘째가 남송이었다. 금과 송, 그 사이에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몽골의 공격은 고려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몽골이 부족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압박을 주었던 금에 대한 공격은 1211년 개시되었다. 이후 징기스 칸은 서쪽 중앙아시아에 대한 원정을 본격화하여, 1219년 사마르칸드를 공략하고 1221년에는 호레즘 왕국을 궤멸시켰다. 이후에도 페르시아 지역으로 진공하고 다시 코카사스를 횡단하여 1223년 칙과 러시아 연합군을 격파하였다.

몽골 정복전쟁은 1227년 징기스칸 사후에도 오고데이(태종, 재위 1229-1241), 구육(정종, 1246-1248), 몽케(현종, 재위 1251-1259), 쿠빌라이(세조, 1260-1294) 등에 의하여 차례로 계승 되었다. 1234년 금의 정복, 1238년 러시아의 모스크바, 블라디미르 함락, 1240년 키에프 함락, 1241년 헝가리군을 격파하고 이어 리그니츠에서 유럽의 기사들을 격파함으로써 러시아와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동아시아에 대한 몽골의 지배권 확보에 있어서 금 정벌은 우선적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오고데이는 금국 정벌을 직접 추진하고 나선다. 1231년 동쪽 방면으로 남진하는 좌익군은 오치킨이, 서쪽 방면은 뚜루이가 우익군을 지휘하였고, 오고데이는 중앙군을 이끌고 직접 금의 국경을 돌파하여 남하하였다. 이에 의하여 1233년 5월 변경(개봉)은 함락되고, 이듬해 1234년 2월 피신하였던 애종이 자살함으로써 금은 멸망하였다.

금의 멸망에 의하여 1234년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공격 목표는 남송이었다. 수도를 옮긴 고려의 저항이 여전히 지속되었기 때문에 고려 공략은 남송과 함께 여전히 남겨진 과제였다. 다만 대남송전을 우세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고려에 대한 선제압이 필수적이었다. 고추를 주장으로 한 몽골의 남송에 대한 공격은 1236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연말 고추가 사망하고, 1241년 오고데이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6년을

지속한 남송에 대한 공격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4대 몽케는 즉위 이듬해인 1252년 쿠빌라이의 군을 운남·대리(大理)로 보내고, 1253년에는 후레구를 사령관으로 한 서방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후레구는 1258년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압바스 왕조를 멸망시킨 다음 1260년에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까지 이르렀다. 한편 운남 방면을 정복한 쿠빌라이는 이후 내몽골의 본영으로 돌아와 주로 중국 화북지역의 경영에 전념하였다. 이 때문에 남송에 대한 공격은 몽케가 직접 주도하고 나섰다.²⁾

남송에 대한 본격적 작전은 고려에 대한 몽골 침입이 막바지에 이른 1257년에 개시되었는데, 전선이 교착된 상태에서 1259년 몽케가 사천 땅 조어산(釣魚山) 부근 진중에서 사망한다. 이 무렵 고려는 몽골과의 화의 체결에 성공하여 몽골군은 고려에서 철수하였다. 몽케의 사망 소식을 접한 쿠빌라이는 악주를 공격하는 남송에 대한 작전을 좀 더 진행한 다음 군을 천천히 돌려 북상하였다. 1259년 쿠빌라이는 북상하는 과정에서 몽골에 입조한 고려의 태자(煚, 뒤의 원종)와 만나고, 이듬해 1260년 6월 충도 북쪽의 개평부에서 대칸에 즉위하였다. 카라코름에서의 아릭부케의 즉위에 한 달 앞서 선수를 친 것이었는데, 같은 시기 고려에서는 태자 전(원종)이 고종에 뒤이어 왕위에 오름으로써, 여몽 간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대략 1270년을 기점으로 몽골은 고려에 대한 지배권을 확실하게 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이 고려의 개경으로의 환도였다. 이것은 고려의 몽골에 대한 항전을 주도하였던 무인정권의 붕괴와 함께 현실화 되었다. 몽골 지배하의 고려라는 국면의 전환에 대항한 세력은 무인정권기의 핵심 군사력을 이루었던 삼별초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삼별초의 전신은 집정자 최우에 의하여 설치된 야별초, 조직 시점은 1230년(고종 17)으로 추정된다. 삼별초의 조직 목적은 치안 유지이지만, 정권의 안정화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설치 초기에는 공격 무력집단으로서의 공공성이 일정 부분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몽골 세계정복에 대해서는 Luc Kwanten(송기중 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 杉山正明 『帝國と長いその後』 講談社, 2008 ; 杉山正明 『モンゴル帝國興亡』 講談社, 1996 ; 杉山正明 『疾驅する草原の征服者』 講談社, 2005 등 참고.

1231년 몽골의 침입을 경험한 최우는 강화도에의 천도를 본격 추진하였다. 몽골의 재침입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살리타이 몽골군이 고려에 몰아닥친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몽골에 대한 항전을 최씨정권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정권을 보위하는 것은 곧 항전책을 공고히 하는 것과 같았다. 이 때문에 강화도의 삼별초는 필연적으로 무인정권에 밀착될 수 밖에 없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무인정권이 갖는 동력은 약화하고 새로운 국면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강화도에 대신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부각된 것이 진도였고, 제주도는 진도를 뒷받침하는 배후 기지로서의 중요성을 갖게 된다.

1270년 6월 삼별초가 봉기와 동시에 진도를 향하여 남하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나리오에 의한 진행이었다. 용장산성과 성 안의 궁궐도 거의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에 의하여 고려는 개경과 진도, 2개의 대립하는 정부가 성립된 상태였다. 그리고 진도는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새로운 고려 왕조의 거점이었다. 진도의 새 정부는 제주도를 배후 기지로 설정하는 한편 일본과의 연대를 통한 해양 거점의 새로운 대몽 방어선 구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1271년 5월 진도는 여몽군의 공세에 의하여 무너지고, 일본과의 연대 기도도 무산되고 만다. 이후 1271년에서 1273년에 이르는 제주도에서의 삼별초는 지역 세력과의 연대에 의한 독자 정치 집단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³⁾

근년 진도에서는 용장성 건물지 조사를 통하여 다량의 와류가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연화문 수키와 와당이 오키나와 우라소에성의 '계유년고려와장조'명 기와와 공반되는 연화문 와당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⁴⁾ 문제의 '계유년'이 1273년으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71년, 그리고 1273년 삼별초의 변동 과정에서 그 세력의 일부가 오키나와에 옮겼다는 것은 사실을 아직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여

3) 진도와 제주도에서의 삼별초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및 『삼별초 - 무인정권·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혜안, 2014 참조.

4) 윤용혁, 「오키나와의 고려기와와 삼별초」 『한국사연구』 147, 2009; 윤용혁, 「우라소에성과 고려·류큐의 교류사」, 『사학연구』 105, 2012.

러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⁵⁾ 근년 강진 월남사의 발굴에서 용장성 와당과 맥락이 연결되는 와당이 확인된 점도 흥미 있다.⁶⁾ 1270년 이후 고려의 삼별초가 남해안과 제주도를 새로운 교두보로 설정하여 몽골의 공세에 대응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⁷⁾

Ⅲ. 제주의 지리적 강점에 주목한 삼별초 세력

제주도는 원래 ‘탐라’라는 이름의 독립 왕국이었으나, 한반도 중심의 정치적 지배력이 확산되면서 그 부속 도서와 같은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 따라서 탐라의 한반도 세력권 편입은 반도에서의 정치적 변동 추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주도가 고려의 한 행정구역으로 정식 편제되는 것은 고려가 건국한 지 2백년이 지난 숙종 10년(1105)의 일이다. 이때 제주도는 ‘탐라군’이 되었으나, 실제 중앙 정부로부터 수령이 현지에 파견된 것은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의종대의 일이었다. 1153년(의종 7) 경 ‘탐라현’으로 개편하여 현령을 파견한 것이 그것이다. 그 후 탐라는 ‘제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몽골 침입 10년 쯤 전인 1223년(고종 10) 경의 일이었다. 제주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고려의 영역에 포함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관심을 끄는 존재는 되지 못하였다.⁸⁾

5) 임영진, 「오키나와 구스크의 축조 배경」, 『호남문화연구』 52, 2012.

6) 김진희, 「월남사지 발굴조사의 현황과 성과」, 『강진 월남사의 변천과 정비 활용 학술회의』 한국중세사학회, 2015.

7) 강화도, 진도, 제주도에 이르는 삼별초의 유적에 대한 조사 작업은 근년 괄목할만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전반적 내용은 주류성출판사 『계간 한국의 고고학』 31(2016.2)에 「고고학으로 걷는 삼별초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으로 게재된 바 있다. 특집은 윤용혁 「삼별초의 길, 강화에서 항파두리까지」, 김병희 「고려 대몽 40년 항전의 보루, 강화중성」, 고용규 「해상왕국 ‘고려’를 꿈꾸다, 용장성」, 강창화·김용덕 「삼별초 최후의 거점, 항파두성」, 이케다 요시후미 「삼별초와 일본·류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8) 고려시대 제주도의 행정적 위상과 추이에 대해서는 김일우, 「탐라의 행정단위 변

제주도가 고려에서 주목되는 것은 몽골의 침략 때문이었다. 몽골과의 전쟁이 장기화 되고 강화도에서의 항전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무인정권은 또 다른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었다. 1260년(원종 1) 2월의 기록에 ‘제주 천도’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무렵(1월) 강도정부는 제주부사 나득황(羅得璜)으로 하여금 제주 방호사(防護使)를 겸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주는 특별히 방호별감을 보내 비상시를 대비해야 하지만, 일단 제주부사에게 방호사를 겸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화도를 포기할 경우에 대비하면서, 제주도의 전략적 유효성이 강도 무인정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주도의 국제 전략상의 유효성에 대한 주목은 기록상으로는 이것이 처음이다. 이후 몽골의 개경 환도 독축이 심해지던 1268년(원종 9)에 제주 천도설은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이같은 정보는 부몽세력에 의하여 바로 몽골 조정에도 전달되었다.

고려 중앙정부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 변화에 의거하여, 이 무렵 몽골 측에 의해서도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표시되고 있다. 1266년(원종 7) 11월 탐라의 성주(城主) 양호(梁浩)가 원종을 알현 후 정언(正言) 현석(玄錫)과 함께 몽골에 입조하였는데,⁹⁾ 양호가 쿠빌라이를 면대하는 것은 이듬해 1267년 정월이었다.¹⁰⁾ 당시 몽골은 일본 혹은 남송 정벌을 위한 유효한 거점지로 제주도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1269년(지원 6) 7월 몽골은 탈타아(脫朶兒), 왕국창(王國昌) 등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일본 혹은 남송 원정의 전진기지로서의 유용성에 대한 현지 점검까지 시행하였다. 제주도의 유효성에 대한 정보는 “얼마 전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만약 탐라에 이르러서 남송과 일본에 가고자 한다면 바닷길이 아주 쉽습니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¹¹⁾ 이는 필시 몽골에 아부하는 고려인들이 제공한 정보였을 것이다.

1266년(원종 7) 탐라 성주 양호(梁浩)가 정언 현석(玄錫)의 안내를 받아 몽골에 입조하고 이듬해 쿠빌라이를 면대한 것은 말하자면 탐라가

화와 외관의 행적],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참고.

9) “濟州星主來見 甲子遣正言玄錫 以星主如蒙古” 『고려사』 26, 원종제가 7년 11월

10) 『원사』 6, 세조본기 4년 정월.

11) 『원고려기』 지원 5년 8월 및 지원 6년 7월.

몽골과 가진 교류의 첫 사건이라 할 수 있다.¹²⁾ 이후 삼별초의 제주 입거와 몽골의 제주도 점령, 탐라총관부의 설치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1세기에 걸치는 원 지배기가 전개되고 몽골 혹은 원 문화가 제주에 이입되었다는 점에서 1267년은 제주 역사에서 기억될만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를 탐라와 몽골이 구체적으로 접촉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2017년은 그 750주년이 되는 해인 셈이다.¹³⁾

1270년 봉기한 삼별초가 거점으로 삼은 것은 진도였지만, 진도 삼별초에 있어서 제주도는 당연히 잠재적 전략 요충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진도 삼별초가 제주도 공략에 나선 것은 나주 공격이 실패한 뒤인 1270년 10월 이후의 일이다. 처음 삼별초가 나주에 승부를 걸고 있을 때, 개경측은 제주도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함으로써 진도정권의 배후를 차단하였다. 개경 정부가 제주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삼별초는 진도 이동 직후 제주도를 바로 접수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진도 삼별초가 제주도를 확보한 것은 진도에 들어간 지 4개월이 지난 1270년 11월 초의 일이었다. 이문경(李文京) 등이 이끈 진도 삼별초군은 제주 명월포에 상륙한 다음, 송담천(松澗川)에서 제주도 김수(金須), 고여림(高汝霖) 등의 방어군을 격전 끝에 격멸 시켰다.¹⁴⁾ 이로써 일단 삼별초의 제주에 대한 지배권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후 삼별초의 본군이

12) 양호에 대해서는 실제 탐라 성주가 아니고 '왕자'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고창 석 「어·원과 탐라와의 관계」 『논문집』 17, 제주대학교, 1984, pp.373-375) 『탐라지』 고적조의 '왕자' 기록이 그 근거인데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쿠빌라이를 알현한 현석이 적어도 '성주'의 직함을 공식적으로 띠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양호의 '성주' 기록이 오류라고 정리하기도 어렵다.

13) 학술회의는 탐라와 몽골 교류 740년 기념으로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740년'의 근거는 1276년(충렬왕 2년) 8월 원에서 塔刺赤가 탐라의 "다루가치로 파견되어 와 말 160필을 키웠다"(『고려사』 28, 충렬왕세가 2년 8월)는 것에 있다. 3년 뒤인 충렬왕 5년에도 원은 말 150필을 탐라에 보내 키우게 하였는데(元遣郎哥歹 送馬百五十四 令放水內 又令揀鄉馬以進), 그 목적이 원의 말 수요 충당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1276년 탐라에서의 말 방목을 몽골과의 교류 시점으로 간주하게 되면 1273년의 몽골군의 제주 함락이나 1266년 제주 성주의 몽골 입조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모두 그 범위에서 제외되고 만다.

14) 송담천 전투 현장에 대해서는 金日宇·文素然, 『韓國·濟州島と遊牧驕馬文化 - モンゴルを抱く濟州』, 明石書店, 2015, 36-37쪽 참조.

제주에 입거하게 된 것은 이듬해(1271) 5월 진도가 몽골군에게 무너진 이후였다.

1273년 제주 삼별초가 여몽군에 의하여 진압 되는데, 진몰 이후 개경 정부는 삼별초 ‘반란’ 진압에 무등산신(無等山神)의 공이 있다하여 매년 제를 지낼 것을 명하였다.¹⁵⁾ 제주도 공함이 무등산의 도움이라고 인식한 것은 제주도를 말하자면 한반도의 부속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개경정부의 보수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삼별초의 제주, 그 이후

1272년(원종 13, 지원 9) 11월 몽골(원)은 탐라의 삼별초 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을 결의하였다. 이 무렵 대남송 전쟁은 요충 양양·번성에 대한 5년째의 장기 포위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두 도시의 함락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공격진용의 편성은 진도 공격 때와 같이 중군과 좌, 우군의 3군으로 편성, 출정 하였다. 4월 9일 나주 반남에서 출발한 연합군은 영산강을 따라 내려가 제주도와외의 중간지점인 추자도에 일단 정박하여 대오를 정비하였다. 제주도에 대한 공격은 세 지점에서 진행된다. 지휘부가 있는 주력의 중군은 삼별초의 거점인 향과두성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함덕포(咸德浦)에, 좌군의 30척 병력은 향과두성에서 서북 방향 비양도(飛揚島)를 교두보로 하여 한림(翰林) 해변으로 상륙하였다. 김방경이 향과두성에 입성하여 항복을 받고 탐라 삼별초군의 진압을 공식화한 것은 4월 28일의 일이다.

향과두성에 진입한 진압군은 삼별초의 지휘부에 있던 김윤서(金允敍) 등 6명을 체포하여 공개 처형하고, 35명은 일단 포로로 잡은 후 나주에서 참수하였다. 1273년(원종 14) 여몽연합군의 공격으로 향과두성이 점령되고 삼별초는 진압 되었다. 삼별초의 지도부는 자결하고 살상된 자 이외에 1천 6백이 포로로 잡혔다. 그러나 그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몸을 피했던 것 같다. 포로 이외에 도망자의 문제는 진도

15) 『고려사』 63, 예지 5 잡종제사 원종 14년.

때와 같이 제주도의 최후에서도 야기되었다.¹⁶⁾ 진도와 제주도에서 몽골 군에 붙잡혀 간 포로는 삼별초만이 아니고 그와 무관한 지역민까지도 붙잡아 갔고, 이에 충렬왕은 이같은 문제를 원의 중서성에 항의하기도 하였다.¹⁷⁾

제주도 함락 때 탈주한 삼별초를 추적하는 것은 고려와 몽골의 중요한 후속 작업이 되었다. 삼별초 진압 2년 후인 1275년(충렬왕 1) 6월, 제주도로부터 탈주하여 육지의 여러 군현에 숨은 삼별초의 잔여 세력을 사면하는 조서를 원에서 내렸는데¹⁸⁾ 이는 탈주자의 추적이 한계에 부딪치자 이를 양성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었다. 같은 해 7월 정부에서 ‘제주도루인물추고색(濟州途漏人物推考色)’이라는 탈주자 검속을 위한 전담의 관부까지 설치했는데, 이것은 삼별초 전란시 진도 혹은 제주도에서의 탈주자가 적지 않은 규모였음을 말해준다. 이듬해 1276년 7월 원이 왕연생(王延生)¹⁹⁾을 고려에 보내 ‘탐라 인물’을 찾아내도록 직접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주 삼별초 세력은 적지 않은 수가 본토 혹은 연안 도서의 각처에 흩어져 숨어들어갔던 것이다. 오키나와에서 출토하는 계유명 고리기와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려 외장이 만든 문제의 ‘계유년’이 삼별초가 제주에서 무너진 1273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71년 진도 삼별초는 몽골·고려 연합세력에 대항하는 방편으로 국제적 공동 연대를 모색하는 사신을 일본에 파견한 바 있다. 또 원·명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계유’라는 간지를 이용하여 연대를 표기한 점도 문제의 기와가 1273년 삼별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²⁰⁾ 필자는 이 계유명 고리기와가 류큐왕국 최초의 불사(佛寺)인 극락사(極樂寺)의 건축과 연관이 있고, 이에 참여한 승 선감(禪鑑)이 중국이나 일

16) 김일우, 「원 간섭기와 공민왕대 이후의 탐라」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2000, 264-268쪽.

17) 『고려사절요』 20, 충렬왕 4년 7월.

18) 『고려사』 28, 충렬왕 원년 6월.

19) 왕연생은 庶出의 고려 왕족으로서 삼별초 진도 함락시에 포로로 원에 잡혀간 인물이다.(『고려사』 28, 충렬왕 2년 7월) 삼별초 조직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인물을 특별히 파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 윤용혁, 「오키나와 출토의 고리기와와 삼별초」 『한국사연구』 147, 2009.

본이 아닌 고려 출신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²¹⁾ 류큐의 사서 『유구국유래기(琉球國由來記)』에 승 선감에 대해 ‘조선’ 출신일 가능성이 함께 언급되어 있는 점은 그 근거의 하나이다.²²⁾

1273년 삼별초의 패망에 이어 탐라에 대한 지배권은 몽골에 넘겨졌다. 몽골은 탐라국초토사라는 관부를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한편으로 고려 정부로 하여금 제주 백성 1만 223명에게 곡식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탐라국초토사는 충렬왕 원년(1275) 탐라총관부로 개편하고 다루가치를 보내 그 지배를 강화하였다. 초토사가 군사적 성격이 강한 관부라고 한다면 총관부는 민사적 성격이 강한 지배기구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대체로 충렬왕 31년(1305)까지 몽골에 의하여 직접 지배되었다. 이 기간 제주도는 원의 목마장으로서 중요하였고, 외부로부터의 유입에 의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충렬왕 26년(1300) 제주도에 제주목 이외의 14개 현이 새로 설치된 것은 이같은 제주도의 인구 증가를 반영하는 조치였다. 따라서 제주도의 역사문화 형성에 있어서 몽골 문화의 영향은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된다. 몽골은 원제국을 성립시켜 중국적 세계문화를 발전 시켰기 때문에, 이 시기의 몽골문화는 유목적 전통문화 이외에 수준 높은 세계문화가 제주에 함께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몽골 지배하의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공간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향파두성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향파두성은 삼별초의 최후 거점으로서만이 아니라 몽골 제주 지배기의 중심점이기도 하였던 것이다.²³⁾ 이러한 점에서 향파두성이 갖는 역사성의 양면

21) 윤용혁, 「우라소에성과 고려·류큐의 교류사」, 『사학연구』 105, 2012, 61-67쪽; 윤용혁, 「오키나와 불교 전래문제와 고려」, 『삼별초』(제2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삼별초역사문화연구회, 2013, 10-18쪽.

22) 『琉球國由來記』 10, 諸寺舊記 序에 선감의 국적이 대해서 “조선인인지 일본인(扶桑人)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중국에서의 가능성은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다.

23) 몽골지배기 제주의 권력 거점이라 할 탐라총관부의 위치는 제주 관덕정 부근일 것이라는 견해가 막연하게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채집된 바가 없고, 문헌과 고고학적 조사는 몽골에 의한 제주 지배 거점이 지속적으로 향파두성에 두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향파두성에서 다수 출토된 ‘門址石’이 사실은 몽골의 대형 계르의 지주목 받침돌이라는 것은 향파두성

을 균형 있게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같은 인식하에서 향파두성의 조사와 연구 및 여몽관계사에서의 새로운 자리매김이 필요한 것이다.

여몽군의 제주 점령은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전선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1274년 여몽연합군의 후쿠오카 상륙, 그리고 1281년 항복한 남송의 군대까지 동원한 13만 병력에 의한 일본에 대한 2차 공격 시도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문영(文永)의 역’, ‘홍안(弘安)의 역’으로 각각 불리고 있는 이 전투는 태풍으로 인한 궤멸적 타격을 입고 허망하게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 전쟁에 동원된 고려민의 어려움과 고통은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일본열도로 무대를 옮겨 전개된 삼별초와 제주도 이후의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별로 기울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쟁은 어떤 점에서는 제주 전투의 연장적 측면이 있고, 이 때문에 삼별초와 여몽전쟁에 대한 또 다른 정보원(情報源)이 숨겨져 있는 역사적 대목이기도 하다.²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제주도를 본관으로 한 다수의 성씨가 언급되어 있다. 조(趙), 이(李), 석(石), 초(肖), 강(姜), 정(鄭), 장(張), 송(宋), 주(周), 진(秦)씨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몽골 지배기가 제주 사회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몽골(원)의 문화는 이미 제주문화 형성에 중요한 하나의 줄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같은 역사는 또 다른 비극의 근원이 되었다. 제주 토착사회에 뿌리를 내린 몽골의 잔류세력(牧胡)이 구축한 지배 체제가 고려의 중앙 권력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삼별초 패망 이후 100년 뒤인 1374년 최영에 의한 군사작전이 그것이다. 목호를 정벌하기 위하여 동원된 군사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였다. 군선이 314척, 군대가 무려 25,605인이었다. 삼별초 진압을 위하여 제주에 파견된 여몽군의 규모가 군선 160척, 병력 1만 2천이었던 것에 비하면, 목호를 겨냥하여

이 몽골에 의하여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개석, 「몽골의 탐라 지배와 향파두리성」,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 37회 한-몽국제학술대회』(학술회의 발표자료집), 2016, 304-306쪽 참조.

24) 윤용혁, 「1274년 여원군의 일본 침입을 둘러싼 몇 문제」, 『도서문화』 25,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5 ; 윤용혁, 「일본에 있어서 ‘元寇’ 연구의 현황」, 『도서문화』 41, 2013 참조.

동원된 병력의 규모는 그 2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군사작전으로 제주도는 1백 년 전 삼별초 진압작전 그때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²⁵⁾

V. 항과두성, 새로운 의미 부여의 필요성

대표적 민족항전 주체로서의 삼별초의 역사적 의미를 처음 주목한 것은 식민지시대 김상기 선생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이같은 삼별초에 대한 시각은 말하자면 남과 북 모두에서 주류적 관점으로 정착되었다. 이 역시 삼별초에 대한 이같은 주류적 역사의식을 그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항몽유적’ 항과두성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한 국가사업으로 정비된 것은 1978년의 일이었는데, 삼별초에 대한 이같은 역사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⁶⁾

항과두성의 정비를 마무리하는 ‘항몽순의비’의 뒷면에 1978년 5월 이 선근이 쓴 비문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몽고의 침략에 굴복하지 않고 줄기차게 싸운 우리 민족의 지력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곳 제주도 항과두리 성내에 항몽순의비를 세워 그날의 정신을 기리고 이어 받을 터전으로 삼으라는 분부를 내리셨다. 이 분부를 받들어 문화공보부와 제주도가 힘을 합하여 항과두리 성을 보수하고 경역을 정화하여 항몽순의비를 세우노니 모두들 여기서 옷깃을 여미고 역사의 교훈을 가슴깊이 되새기자.

항과두성의 정비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특별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과두성에 대한 조사 혹은 문화재 지정과 같은 기본적 작업이

25) 이에 대해서는 김일우, 「고려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 2003; 김일우, 「고려말 탐라사회의 실태와 범섬 전투의 의미」, 『고려시대 제주사회의 변화』 서귀포문화원, 2005 참고.

26) 삼별초의 역사적 평가와 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일지사, 2000)에 실린 논문 「북한사학의 대몽항쟁 연구와 서술」, 「삼별초 대몽항전을 보는 여러 시각」 참조.

전혀 수반되지 않은 채 ‘토목사업’으로서 진행되었다. 삼별초의 역사성을 문화재 지정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당시 학계의 책임이 크다. 문헌사학 위주의 역사학이 현장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못하였고, 고고학적 관심 또한 고대사 자료 위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향파두성 유적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7년에야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지정 명칭은 ‘향파두리 향몽유적지’이다.

지금까지 삼별초에 대한 정리와 평가는 국가사적 관점, 민족사적 관점 일반도였다. 향파두성의 지정 명칭이 ‘향파두리 향몽유적지’가 된 것 또한 이같은 역사성을 강조한 것이다. 역사성의 강조는 다른 한편으로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모호성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민족의식을 주목하고 강조하는 것은 일정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그러나 문화다양성이 강조되는 21세기의 우리 시대에 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갖는 다양한 의미를 희석시키고 오히려 그 진면을 왜곡하는 바가 없지 않다.

제주도는 삼별초 이후 1세기 동안 몽골의 정치 문화적 영향이 확대되었고, 이것이 제주 문화의 한 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때문에 몽골에 대한 저항을 ‘정통적 가치’로 자리매김할 경우, 이후 1 백년 제주 역사의 또 다른 내용은 이 ‘정통성’에서 벗어난 문화 내용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년 한국은 민족적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이행하고 있다, ‘단일민족’ 혹은 ‘민족’ 중심의 인식 패러다임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 상황에서 중세 제주 역사가 갖는 문화다양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경험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와 사상을 그 나름의 가치와 역사 배경에서 파악하는 시각의 다양화, 문화 다양성의 추구는 앞으로 더욱 필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의 삼별초 혹은 몽골 관련 콘텐츠도 향후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국제적 시각, 혹은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삼별초 유적에서 제주의 ‘지역적 관점’이 강조되는 것은 이같은 시각의 다양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²⁷⁾

27) 김일우, 「제주 향몽유적의 역사성과 문화콘텐츠화 방안」, 『몽골학』 43, 한국몽골

항파두성은 삼별초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몽골 관련 의 중심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항파두성은 ‘민족정신’의 거점이기도 하지만, ‘문화다양성’의 거점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항파두성을 ‘항몽유적지’라고 규정한 문화재 지정 명칭의 개정도 필요한 일이다. 이 유적이 가지고 있는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의미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⁸⁾

삼별초 유적의 역사적 평가와 관련, 근년 삼별초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논의가 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한 첫 제안이 있었던 것은 2012년, 제주고고학연구소 주최의 학술 모임에서의 일이다. 제안자는 기와 연구자인 일본 국사관대학의 도다(戶田有二) 교수이다.²⁹⁾

그후 인천시 강화군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하기 위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는데,³⁰⁾ 이때 참성단, 강도유적, 해양관방유적의 3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다. ‘강도 유적’은 고려시대 대몽항쟁 유적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을 추진하는 안이다. 결과적으로 강화에서의 세계유산 추진은 강화도의 ‘해양관방유적’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 되었다. 강화도는 38년 강화도읍기의 서울이며, 삼별초의 거점지이기도 하다. 사업은 2016년 문화재청의 잠정목록 등재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그러나 향후 진행에 따라서는 고려시대 강도유적을 연계하는 안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전문가들에 의한 논의는 아니지만 최근 한 고등학교 역사동아리에서는 삼별초 유적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의 세계유산 추진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³¹⁾ 삼별초 유적의 세계유산 추진은 아직 제안의 단계에

학회, 2015, 4-14쪽 참조.

28) 현재의 사적 지정 명칭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에 대한 적절한 대안은 ‘제주 항파두성’이 될 것이다. ‘항몽유적지’에 대한 안내판의 한자 표기도 ‘抗蒙遺蹟址’로 되어 있다. ‘抗蒙遺蹟地’의 잘못된 표기이다.

29) 戶田有二, 「오키나와 우라소에 성과 고려기와 문제」, 『초청 학술강연회 자료집』 제주고고학연구소, 2012, 39-42쪽. 도다 교수는 2014년 4월 경 작고하였다.

30) 강화고려역사재단 주최 <강화 역사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 회의> 2015.3.27

31) 청심국제고등학교의 역사동아리(‘역사두드림’)에서 전개하고 있는 삼별초 유적 등재 홍보활동이 그것이다. 청소년의 레벨에서 “역사 속에서 아시아 국가 간의 이해

머물러 있다. 그러나 강화, 진도, 제주의 3개 지차체를 연계하고, 큐슈의 관련 유적과 연계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엮는다면, 다국가 연계의 세계유산으로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13세기 몽골의 확대에 대항하는 저지선의 거점이 강화, 진도, 제주, 후쿠오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삼별초는 13세기 ‘몽골의 시대’를 반영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다. 고려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은 13세기에 몽골의 군사적 압박이라는 공통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금과 송이 차례로 몽골의 영토가 되고 그 터 위에 ‘원’ 제국이 수립되었으며, 일본은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군사적 침공에 의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열도를 제외한 동아시아 각국은 1270년 고려, 1279년 중국(남송)의 순으로 몽골 세계에 차례로 편입된 것이다. 이같은 몽골제국의 확대과정에서 삼별초는 가장 치열하게 그 흐름에 저항했던 무력 집단이었다.

동아시아는 하나의 세계로서 오랜 역사와 공통된 문화를 축적해왔다. 그러나 20세기 일본 제국주의의 발호에 의하여 동아시아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의하여 공동체적 콘센서스가 철저히 파괴되었다.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고 협조를 진작시켜야 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 우리의 21세기는 파괴된 동아시아 세계를 복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흐름에서 13세기 삼별초 관련 의 여러 유적들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내는 일이 결코 쓸모없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향파두성이 여기에서 핵심적 공간으로서의 위치를 갖는 것은 물론이다.

VI. ‘한몽 수교 800년’ - 맺는말에 대신하여

한국이 근대국가 몽골과 국교를 수립하는 것은 1995년의 일이다. 몽골은 1921년 아시아 최초의 공산국가로서 근대 역사를 시작한다. 몽골

관계가 얽힌 이슈를 화해와 협력으로 풀어 공생하는 방안을 연구, 제안 하자”는 것이 단체 활동의 취지라고 홍보지에서 밝히고 있다.

인민공화국이다. 70년 후 탈소(脫蘇) 개방화의 바람 속에서 1990년 러시아 영향 하의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하고 민주주의 몽골국이 성립하면서, 1995년 한국과도 국교 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한국과 국교가 수립된 1995년, 민간단체인 ‘한·몽골교류협회’가 발족하고, 이에 의하여 같은 해 『한·몽골 교류 천년』이라는 책자가 간행되었다. ‘한·몽골 교류 천년’은 한국과 몽골의 관계를 서기 995년으로 소급하여, 1995년을 한몽관계 ‘천 년’으로 설정한 것이다. 한몽 교류 천년으로 설정된 995년(성종 14)에는 “아동 10명을 거란에 보내 거란어를 배우게 하였다”³²⁾는 것이 그 근거이다. 이때의 ‘거란’과 ‘거란어’를 몽골족과 몽골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³³⁾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정확한 것 같지 않다. 당시 고려는 거란과의 대외관계가 최대의 현안이었다. 993년에는 거란의 대군이 고려에 침입하여 서희의 협상이 주효하여 물러간 적이 있다. 이에 의하여 고려는 거란(요)에 대한 사대 외교 관계를 정립하고 있던 시점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거란, 거란어’는 문자 그대로 거란과 거란어이고, 몽골과 연결될 소지가 없다. 몽골과 한국 역사의 연계는 다음 시대의 일인 것이다.

고려-몽골 외교관계의 맥락에서 주목되는 시점은 몽골군이 처음 고려에 진입한 초기인 1219년(고종 6)이다. 몽골에 쫓기는 거란군을 추격하여 고려에 입경한 몽골군이 고려와 연합작전을 성공시킨 후, 이때 양국이 ‘형제맹약’이라는 특별한 외교적 관계를 약정하였고 이로부터 다사다난한 여몽관계가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역사상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주변의 민족 대부분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란이 그렇고, 여진이 그렇다. 그런데 몽골의 경우는 예외이다. 13, 14세기 고려와 동아시아에 절대적 존재감을 가지고 있던 몽골은 1924년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였으나, 1990년 공산정권 붕괴 이후 1995년 한국과 수교하여 긴밀한 외교적 관계가 현재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³⁴⁾ 수교 20년이 채 안된 2012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몽

32) “遣童子十人於契丹習其語”(『고려사』 3, 성종세가 14년)

33) 수미야바타르, 「몽골과 고려와의 관계」, 『한·몽골 교류 천년』 한·몽골교류협회, 1995, 43쪽.

34) 1990년 이후 몽골의 민주화 정착 과정은 제도 개혁의 준비 단계(1990-1992), 법

골인이 3만,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3천을 헤아리게 되었다. ‘한몽 수교 20년’을 말하지만, 사실은 다가오는 2019년에 한몽 관계는 ‘수교 800년’을 맞게 된다. 몽골과 우리의 직접적 외교 관계의 성립이 8백 년 전인 12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몽골군이 고려에 처음 진입한 것은 징기스칸 시대인 1218년의 일이었다. 몽골의 압박에 밀려 고려에 침입한 거란족의 일부집단을 쫓아 몽골군이 고려에까지 진입해 들어온 것이었다. 이들 최초의 몽골군은 동북 국경지역의 화주, 맹주, 순주, 덕주를 공파하고 거란적을 추격하여 12월 평남 강동성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 1219년(고종 6) 1월, 현장의 양측 군사 지휘부는 ‘형제맹약’이라는 형식의 외교관계를 맺는다.³⁵⁾ 이 시기 몽골은 금의 수도 충도를 함락하여 동북지역에서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던 있었기 때문에 고려와의 협약은 동북지역의 안정적 지배권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몽골에 대한 세공의 납부라는 것이 협약의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이에 의거, 그해 9월 이후 1225년(고종 12)까지 7년 간 몽골은 매년 고려에서 공물을 거두어 갔다.³⁶⁾ 1219년 여몽간의 ‘형제맹약’은 몽골의 고려 침입, 혹은 원 간섭기에 있어서까지 고려-몽골의 관계 설정의 중요한 지침으로 논란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1219년 ‘형제맹약’의 의미와 성격은 근년 여몽관계사의 중요한 논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³⁷⁾

1219년 여몽간의 화약(和約)은 몽골로부터의 무리한 공물 요구가 수

를 제정에 의한 개혁의 진행(1992-1997),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민주국가 정착기(1997-2000)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김희경, 「몽골 외교 안보정책의 특징과 변화 양상」,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37회 한-몽국제학술대회』(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2016, 496-497쪽 참조.

- 35) 1218년 몽골 哈眞이 가져온 형제맹약 요구를 받아들여 1219년 1월 13일 結和 첩문을 작성하여 몽골 행영에 가져갔고, 거란이 항복한 다음날 14일 扎刺이 이에 대한 조충 김취려에게 하게 하였고, 20일 哈眞, 扎刺이 조충 김취려에게 동맹 내용을 재확인한 다음, 24일 고려 국왕에게 징기스칸의 조서를 전달한 것이 맹약 체결의 전체 과정이다. 이개석 「여몽 형제맹약과 초기 여몽관계의 성격」, 『대구사학』 101, 2010, 90-91쪽 참조.
- 36) 고병익, 「몽고·고려의 형제맹약의 성격」, 『동아교섭사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1970, 168쪽.
- 37) 이개석 「여몽 형제맹약과 초기 여몽관계의 성격」, 『대구사학』 101, 2010.

반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 간의 상호관계로서 위치 지워진 관계였다. 원 간섭기에 있어서 1219년의 ‘맹약’은 이것이 여원관계의 출발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특히 그것이 징기스칸의 지침, 그리고 우호적 분위기에서 출발된 것이었음을 강조되어 있다. 김취려전에서는 카진(합진), 자라(찰랄)이 고려의 조충, 김취려 등과 형 동생을 서로 삼고 주석(酒席)을 같이하면서 “양국이 영원히 형제가 되어 만대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맹약을 잊지 말자”는 다짐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³⁸⁾

근대국가로서의 국교 수립과 별도로 전근대에서 국가적 차원의 외교 관계 성립 시점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몽골은 전근대 우리나라와 국교관계의 수립 시점이 명기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리고 그것이 1219년 1월의 일이었다. 이에 근거한다면 2019년은 한국과 몽골이 처음으로 국교를 수립한 800주년이 되는 해인 셈이다. 1219년 ‘여몽 형제맹약’의 의미는 13세기 고려와 몽골이라는 역사적 관점만이 아니고, 이제 21세기 한국과 몽골이라는 현재적 차원에서 해석 될 필요가 있다.

38) 여몽 형제맹약의 자료에 대한 역사학적 검토는 박종기, 「원 간섭기 역사의학의 새 경향 - 당대사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1, 2011; 윤용혁, 「김취려 장군에 대한 인물사적 평가」, 『13세기 고려와 김취려의 활약』 한국중세사학회 편, 해안, 2011 참조.

참 고 문 헌

『고려사』

『고려사절요』

『원고려기』

『원사』

『탐라지』

『琉球國由來記』

고병익, 『동아교섭사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1970.

한·몽골교류협회, 『한·몽골 교류 천년』, 1995.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김일우, 『고려시대 제주사회의 변화』 서귀포문화원, 2005.

한국중세사학회 편, 『13세기 고려와 김취려의 활약』 해안, 2011.

윤용혁, 『삼별초 - 무인정권·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해안, 2014.

Luc Kwanten(송기중 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杉山正明 『モンゴル帝國興亡』 講談社, 1996.

杉山正明 『疾驅する草原の征服者』 講談社, 2005.

杉山正明 『帝國と長いその後』 講談社, 2008.

金日宇·文素然, 『韓國·濟州島と遊牧騎馬文化 - モンゴルを抱く濟州』, 明石書店, 2015.

고창석 「여·원과 탐라와의 관계」 『논문집』 17, 제주대학교, 1984.

김일우, 「고려 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 2003.

윤용혁, 「1274년 여원군의 일본 침입을 둘러싼 몇 문제」 『도서문화』 25,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5.

윤용혁, 「오키나와의 고려기와와 삼별초」 『한국사연구』 147, 2009.

이개석 「여몽 형제맹약과 초기 여몽관계의 성격」 『대구사학』 101, 2010.

박종기, 「원 간섭기 역사학의 새 경향 - 당대사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1, 2011.

윤용혁, 「우라소에성과 고려·류큐의 교류사」 『사학연구』 105, 2012

- 임영진, 「오키나와 구스크의 축조 배경」 『호남문화연구』 52, 2012.
- 戸田有二, 「오키나와 우라소에 성과 고려기와 문제」 『초청 학술강연회 자료집』
제주고고학연구소, 2012.
- 윤용혁, 「오키나와 불교 전래문제와 고려」 『삼별초』 (제2회 국제학술대회 자료
집) 삼별초역사문화연구회, 2013.
- 윤용혁, 「일본에 있어서 ‘元寇’ 연구의 현황」 『도서문화』 41, 2013.
- 김일우, 「제주 항몽유적의 역사성과 문화콘텐츠화 방안」 『몽골학』 43, 한국몽골
학회, 2015.
- 김진희, 「월남사지 발굴조사의 현황과 성과」 『강진 월남사의 변천과 정비 활용
학술회의』 한국중세사학회, 2015.
- 이개석, 「몽골의 탐라 지배와 향파두리성」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37
회 한·몽국제학술대회』(학술회의 발표자료집), 2016.
- 김희경, 「몽골 외교 안보정책의 특징과 변화 양상」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
념 제37회 한·몽국제학술대회』(학술회의 발표자료집), 2016.

Abstract

Jeju Sambyeolcho and Mongolia and East Asia

Yoon, Yong-hyuk*

Sambyeolcho used Jeju Island as their strategic, major base until their defeat there after occupying the island in 1270. It was Sambyeolcho force that first figured out that Jeju Island was a key point to fight against Mongolia. However, it was Mongolia that actually used Jeju Island as a strategic base and consequently, Mongolian culture was deeply planted in Jeju Island.

Hangpaduseong, the core of Mongolia-related cultural heritage in Jeju Island, is stressed with national perspective of being 'anti-Yuan.' 'Historic Site of Anti-Yuan Movement in Hangpadu-ri,' the official name of Hangpaduseong as cultural property, is also reflection of such concept. However, it is now needed to actively consider Jeju Island's feature of 'cultural diversity.' In that sense, it is required to change our awareness for fully utilizing Mongolia elements of cultural heritages in Jeju Island. Issues arising include changing the name of Hangpaduseong, promoting it as UNESCO World Heritage and encouraging Jeju Island's active role upon eight hundred years of Korea-Mongolia diplomatic relations.

* Professor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 Jeju Island, Sambyeolcho, Hangpadoseong, Mongolian Rule, Korea-Mongolia Diplomatic Relations.

교신 : 윤용혁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 56
공주대학교 역사교육학과
(E-mail : hyuk@kongju.ac.kr)

논문투고일 2016. 04. 26.

심사완료일 2016. 06. 10.

게재확정일 2016. 06. 13.

